

# 古新羅 有段式기와에 대하여

趙 成 允 \*

## 목 차

- |                    |               |
|--------------------|---------------|
| I. 서론              | III. 유물 편년    |
| II. 자료 소개          | IV. 유단식기와의 성격 |
| 1. 육통리와요지 출토 유단식기와 | V. 맺음말        |
| 2. 다경와요지 출토 유단식기와  |               |
| 3. 황룡사지 출토 유단식기와   |               |
| 4. 하구리 출토 유단식기와    |               |

## < 요 약 >

이 글에서는 경주에서 출토된 유단식기와의 소개하였다. 그 다음 평기와제작기법과 각 유적의 공반유물인 연화문수막새, 미구기와, 평기와의 고려하여 편년하였다. 백제·고구려암막새의 예를 소개하고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에 의한 편년을 참고하였다. 그 다음 경주에서 출토된 유단식기와의 백제·고구려암막새와 비교하여 그 성격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경주에서 유단식기와의 출토된 곳은 육통리와요지, 다경와요지, 황룡사지, 하구리 등이다. 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유단식기와는 7세기말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 출토 유단식암막새를 고구려 장군총 출토의 지두문암막새, 백제 군수리 출토의 지두문암막새, 백제 구아리 출토의 유단식암막새와 비교한 결과 암막새의 문양면에서 확인되는 지두문, 횡침선, I字形 段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삼국시대 암막새의 편년 서열을 상징하여 보았다. 고구려 지두문암막새(장군총 출토 지두문암막새) → 백제 지두문암막새(군수리 출토 지두문암막새) → 백제 유단식암막새(구아리 출토 유단식암막새) → 경주 유단식기와.

\*慶州大學校博物館 學藝研究員

## I. 서론

경주시내와 인근의 신라시대 유적 발굴과 답사를 통해 볼 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유물 가운데 하나는 기와일 것이다. 특히 경주시내의 왕경 유적 발굴에서 기와의 출토량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렇지만 기와는 연구성과의 부족과 연구자의 빈곤 등으로 다른 유물에 비해 중요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기와를 역사고고학을 연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연구성과도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신라의 기와 연구는 체계적인 편년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엇보다도 편년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새로운 자료가 보고되고 정밀한 발굴이 진행되어 기와 편년작업의 기초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신라기와의 편년연구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신라 유단식기와의를 소개하고 그런 다음 그것을 토대로 편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고신라 유단식기와의를 백제·고구려의 암막새와 비교하여 그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보고 예를 고려할 때 경주지역에서 출토되는 고신라 암막새로 추정되는 것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여기에서 다룰 유단식기와의이고 다른 하나는 월성해자, 물천리요지에서 출토된 토기구연부형기와이다.<sup>1)</sup> 위에서 암막새로 추정한 고신라 기와의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자.<sup>2)</sup> 이 기와를 암막새로 추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뒤에서 편년근거를 가지고 시기를 설정하겠지만 이 기와는 신라의 당초문암막새<sup>3)</sup>가 등장하기 이전에 제작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현재의 정황으로 볼 때 그 이후의 시기에는 제작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端部에 L字形 段이 있는 부분은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장식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기능적인 측면에서 端部에 L字形 段을 지게 제작한 것이라면 이 전통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지금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sup>4)</sup> 그렇다면 장식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제작한 신라의 당초문암막새의 전형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 이 기와와 유사한 예가 부여 구아리 유적<sup>5)</sup>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그림 7) 이 보고서에

1) 國立慶州博物館, 2000, 『新羅瓦塼』, pp. 32~33 도61·62, p.182 도579.

2) 유단식기와는 선행연구에서 端平瓦로 명명하고 平瓦當(암막새) 이전의 것으로 처마 끝에 장식되는 것으로 보았다. (金誠龜, 1984, 『統一新羅時代の瓦塼研究』, 『考古美術』 162·163호, 한국미술사학회)

3) 여기서 말하는 당초문암막새는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儀鳳四年銘 당초문암막새이다. (國立慶州博物館, 2000, 『앞의 책』, p.64, 도196)

4) 어떤 유물에서 제작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관찰될 때 그 의도적인 행위는 공급처나 수요처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유단식기와의에서 보이는 端部の L字形 段을 위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였다.

5) 부여문화재연구소, 1993, 『부여 구아리 백제유적 발굴조사보고서』, pp.60~61.

서도 암막새일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필자가 지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기와가 암막새의 시원 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암막새로 단정할 결정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형식과 분류상 아직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어 여기에서는 임시로 “有段式기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토기구연부형기와에 대해서도 용어 사용에 대한 이견이 있다. 월성 해자 발굴시 출토층위와 공반유물인 연화문수막새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라지역에서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암막새”로 본 견해,<sup>6)</sup> “원시 암막새형 기와”로 명명한 견해,<sup>7)</sup> 암막새라기 보다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瓦形土器”라고 명명한 견해,<sup>8)</sup> 처마 끝에 장식되는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끝기와”라고 부르는 견해<sup>9)</sup>가 있다. 이 기와와 유사한 예가 부여 부소산성<sup>10)</sup>에서 출토된 바 있다. 현재의 정황으로 볼 때 이 기와를 암막새로 보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암막새로 단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증거가 없어 여기에서는 임시로 “土器口緣部形기와”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II. 자료 소개

### 1. 육통리와요지 출토 유단식기와

이 유적은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에 위치하고 있다. 육통리와요지 출토 유물은 단판연 화문수막새, 미구기와, 암키와, 유단식기와 등이 보고되었다.<sup>11)</sup> 여기에서는 유단식기와만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① 대체로 황갈색이며 부분적으로 회갈색을 띤다. 태토<sup>12)</sup>는 정선된 것이고 소성도<sup>13)</sup>는 와질

6) 申昌秀, 1987, 「三國時代新羅기와의 研究 -皇龍寺址出土 新羅기와를 中心으로-, 『文化財』第二十號, p.34.

7) 金昌鎬, 1999, 「益山 彌勒寺 景辰銘 기와로 본 고신라 기와의 원형, 『한국학연구』 第10輯, p.18.

8) 金誠龜, 2000, 「新羅기와의 成立과 그 變遷, 『新羅瓦博』, pp.432~433.

9) 위덕대학교박물관 박흥국실장의 사견.

10) 夫餘文化財研究所, 1995, 『扶蘇山城(發掘調査中間報告)』, p.433, 도 ②~⑧.

11) 國立慶州博物館, 2000, 『앞의 책』, pp.184~186.

12) 태토는 기와를 만드는 원료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정선된태토와 거친태토로 구분하고자 한다. 구분 기준은 규사(비집)의 함유량인데, 점토 속에 다량의 규사(비집)가 포함된 것을 거친태토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것을 정선된 태토로 부르코자 한다.

13) 소성도는 와요의 구조, 와요 내의 기와 적재 위치, 태토, 빨감 등과 와공의 기술수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소성도를 기와에서 관찰되는 경도와 색조 등을 기준으로 연질, 와질, 경질로 구분한다. 연질에 해당되는 기와는 손으로 만지면 태토가 묻어 나오는 것을 말하고, 와질에 해당되는 기와는 손톱으로 긁어도 잘 긁히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경질에 해당되는 기와는 청색계통의 것으로 두드리면 쇠소리가 나는 것을 말한다.

소성이다.凸면<sup>14)</sup>에는 타날흔적<sup>15)</sup>이 관찰되지 않으며 凹면에는 마무리질에 의해 포목흔적<sup>16)</sup>이 지워져 일부만 관찰된다.端部는 L字形으로 되어 있다.이것은 성형 후 (와도등으로) L字로 베어낸 후, 마무리질 한 것이다.(그림 1)

현재 너비 : 5.5cm, 현재 길이 : 11.9cm, 두께 : 2.0cm

## 2. 다경와요지 출토 유단식기와

이 유적은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에 위치하는데 일명 다경와요지라고 한다.<sup>17)</sup> 단편연화문막새, 당초문암막새, 사례와, 귀면와, 암키와, 수키와, 전 등이 보고되었다.<sup>18)</sup> 여기에서는 유단식기와 2점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② 청회색이며 깨어진 단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암자색이 확인된다. 태토는 정선된 것이고 소성도는 경질소성이다. 고온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균열이 확인된다.凸면에는 격자문 단판으로 추정되는 타날흔적이 관찰되는데 마무리질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워진 상태이다.내면은 포목흔적이 관찰되며 端部는 L字形으로 되어 있다.이것은 성형 후 (와도등으로) L字로 베어낸 후, 마무리질 한 것이다.(그림 2)

현재 너비 : 14.9cm, 현재 길이 : 20.1cm, 두께 : 2.7cm

③ 황갈색이며 부분적으로 백회색을 띤다. 태토는 정선된 것이며 소성도는 와질소성이다.凸면은 격자문 타날흔적이 관찰되는데 마무리질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워진 상태이다. 위의 ②

14) 평기와의 있어 내면·외면이 지칭하는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가령 평기와 제작과정을 고려할 때, 내면은 와통에 접토가 부착되는 면으로써 포목흔적이 있는 면으로 볼 수 있고, 외면은 타날흔적이 있는 면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평기와의 지붕에 올려진 것을 고려할 때, 위에서 언급한 것과는 반대로 포목흔적이 있는 면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외면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평기와 제작과정을 고려할 때와 지붕에서 평기와의 사용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각각 용어 사용에 있어 서로 상치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凹면(포목흔적이 있는 면)·凸면(타날흔적이 있는 면)

15) 타날흔적은 소지를 와통에 붙인 후 타날판(叩板)으로 두드려 원통기와의를 성형하는 과정에서 남는 흔적으로 평기와의 凸면에 남는다.

16) 평기와의 凹면에서 관찰되는 흔적으로 와통과 원통기와의 분리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포목흔적은 평기와의제작과정을 고려할 때 평기와의 필수요건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 포목흔적과는 다른 승석문흔적이 평기와의 내면에 나타나는 것도 보고(韓國上古史學會, 2000, 『섬진강 주변의 백제산성』)되고 있는데 양자의 기능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 繩席文을 가진 평기와의가 百濟의 古都인 公州·扶餘에서 발견되지 않고 地方의 山城 등에서만 발견되어 地方瓦로 보는 견해가 있다.(龜田修一, 1996, 『韓半島南部地域瓦當裏面布目軒丸瓦』, 『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p.658)

17) 金誠龜, 1983, 『多慶瓦窯址出土 新羅瓦博小考』, 『美術資料』第33號, 國立中央博物館.

18) 國立慶州博物館, 2000, 『앞의 책』, pp. 187~190에 소개된 것이다.

와 같이 단판으로 추정된다. 뒀면에는 포목흔적이 관찰되며 端部는 L字形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성형 후 (와도등으로) L字로 베어낸 후, 마무리질 한 것이다.(그림 3)

현재 너비 : 19.7cm, 현재 길이 : 9.0cm, 두께 : 2.9cm

### 3. 황룡사지 출토 유단식기와

이 유적은 경북 경주시 인왕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당시의 다른 유적들에 비해 『三國史記』·『三國遺事』등의 고문헌에 기록이 남아 있고 위치 또한 분명하여 역사고고학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시되고 있다. 발굴조사는 1976년 4월부터 1983년 12월까지 8차에 걸쳐 조사가 실시되었다. 발굴결과 새로운 자료와 수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sup>19)</sup> 여기에서는 경주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황룡사지 출토 유단식기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sup>20)</sup>

④ 회청색이며 깨어진 단면에서는 황갈색과 회청색이 확인된다. 태토는 정선된 것으로 1mm 내외의 규사(비집)가 소량 관찰된다. 소성도는 경질소성이다.凸면에는 선문 타날흔적이 관찰되는데 마무리질에 의해 타날흔적이 부분적으로 지워진 상태이다. 타날판의 크기는 단판 또는 중판으로 추정된다. 뒀면에는 포목흔적이 관찰되며 端部는 L字形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성형 후 (와도등으로) L字로 베어낸 후, 마무리질 한 것이다.(그림 4, 도면 1)

현재 너비 : 6.3cm, 현재 길이 : 9.7cm, 두께 : 2.2cm

### 4. 하구리 출토 유단식기와

이 유적은 경북 경주시 하구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주대학교 박물관에서 2000년 8월부터 11월까지 시굴조사를 실시한 곳이다.<sup>21)</sup>

⑤ 청회색이며 깨어진 단면에는 1mm내외의 규사(비집)가 소량 관찰되는 것으로 정선된 태토이다. 소성도는 경질소성이다.凸면에는 타날흔적이 관찰되지 않으며 뒀면에는 포목흔적이 관찰된다. 端部는 L字形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성형 후 (와도등으로) L字로 베어낸 후, 마무리질 한 것이다. (그림 4, 도면 2)

현재 너비 : 8.9cm, 현재 길이 : 11.2cm, 두께 : 2.6cm

19) 文化財管理局, 1984, 『皇龍寺』.

20) 경주대학교박물관에서는 신라문화동인회회장인 김태중선생의 기증유물인 와·전류를 소장하고 있다.

21) 慶州大學校博物館, 2000, 『慶州 見谷 下邱里 共同住宅造成豫定敷地 內 埋藏文化財 試掘調査 略報告書』 『지표·시굴조사 종합보고서』

### Ⅲ. 유물 편년

유단식기와와 편년 근거는 유단식기와에서 관찰되는 흔적인 타날흔적, 태토 등을 고려하고 아울러 해당 유적의 공반유물과 선행연구도 참고한다. 지금까지 평기와<sup>22)</sup> 제작기법에 대한 선행연구<sup>23)</sup>에서 신라 평기와 편년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속성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타날흔적은 소지<sup>24)</sup>를 와통에 붙인 후 타날판(叩板)으로 두드려 원통기와<sup>25)</sup>를 성형하는 과정에서 남는 흔적이다. 이 흔적은 타날판의 형태나 크기·타날방향에 따라 승석문·선문·격자문·사격자문·기하학문·어골문·복합문 등의 형태로 평기와의凸면에 남는 흔적이다. 타날판의 크기는 단판(短板)·중판(中板)·장판(長板)으로<sup>26)</sup> 나누어 볼 수 있다. 단판은 암키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할 때 5판 정도를 두드릴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고, 중판은 암키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할 때 2 - 4판을 두드릴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며, 장판은 암키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할 때 1판을 두드릴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타날흔적은 지금까지의 평기와 편년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어 왔던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대체로 7세기말 이전에 제작된 평기와는 외면에 승석문·선문·격자문·사격자문 등이 남고, 판의 크기는 단판이다.<sup>27)</sup>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경주 경마장 출토 평기와, 다경와요지 출토의 이른 시기의 평기와, 망성리와요지의 이른 시기의 평기와, 동산리와요지의 이른 시기의 평기와, 안압지 출토의 이른 시기의 평기와 등을 들 수 있다.<sup>28)</sup> 이 중에서 안압지 출토의 儀鳳四年

- 
- 22) 암키와(平瓦)와 수키와(圓瓦)를 사용함이 원칙이나 여기에서는 편의상 암키와, 수키와를 합쳐서 부르는 용어로 평기와를 임시로 사용하고자 한다.
- 23) 徐五善, 1985, 「韓國平瓦文樣의 時代的 變遷에 대한 研究」, 忠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請求論文.  
 崔兌先, 1993, 「平瓦製作法의 變遷에 대한 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請求論文,  
 忠南大學校博物館, 1998, 『聖住寺』.  
 崔孟植, 1999, 『百濟 평기와의 新研究』.  
 趙成允, 2000, 「慶州 出土 新羅 平기와의 編年 試案」, 慶州大學校大學院文化財學科碩士學位請求論文.
- 24) 素地の 사전적 의미는 가공하지 않은 본바탕이고, 이것은 와통에 붙이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데 점토판과 점토띠로 구분된다. ( 崔孟植, 1999, 『百濟 평기와의 新研究』, p. 56, 참조)
- 25) 원통기와는 와통에서 분리되기 전·후의 상태로 완전히 분할되지 않은 원통형 상태를 말한다.
- 26) 崔兌先, 앞 논문, 1993, p.18를 참고로 하였다.
- 27) 趙成允, 2000, 「앞의 논문」.
- 28) 趙成允, 2000, 「앞의 논문」의 도입기, 정착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서는 신라기와를 도입기, 정착기, 확산기로 나누어 편년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도입기를 6세기중엽~6세기말, 정착기를 7세기초~7세기중엽, 확산기를 7세기말 이후로 각각 편년하였다. 그러나 경주에서 출토되는 수막새의 연구성과를 검토한 결과 위의 편년 안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그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도입기를 6세기초~7세기초, 정착기를 7세기초~7세기말, 확산기를 7세말 이후로 정정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면을 달리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銘 암키와가 있어 편년의 근거가 된다.<sup>29)</sup> 이 암키와는 타날문양, 타날방향 등을 고려할 때 이전 시기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0)</sup> 앞의 글을 참고할 때 안압지 2식에 속하는 것은 儀鳳四年銘 암키와를 포함하여 幾何學紋을 가진 암키와이다.<sup>31)</sup> 儀鳳四年銘 암키와와 幾何學紋 암키와를 같은 안압지 2식으로 보는 근거는 타날판의 크기, 타날방향, 규격 등을 고려하였다. 타날문양을 고려할 때 안압지 2식에 속하는 기하학문 암키와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전의 시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타날방향을 고려할 때 안압지 2식은 橫防向打捺이고 이전의 시기에는 대체로 弧狀打捺이다. 이 암키와들은 儀鳳四年銘 암키와를 고려할 때 안압지 창건기에 가까운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다음으로 태토에 대해서 살펴보자. 여기에서의 태토는 기와를 만드는 원료를 지칭하는 용어로 그 구성성분을 점토와 규사(비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규사는 점토의 수축률을 조절하기 위하여 탈점제의 기능으로 점토에 혼입하여 사용하는 것이다.<sup>32)</sup> 여기에서 규사(비짐)는 고고학에서 토기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세사립과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 규사(비짐)는 기와의 소성과정에서 점토의 수축률을 조절하여 불량기와, 즉 휘어지고 균열이 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체로 7세기말을 전후하여 신라기와의 태토에서 확인되는 규사(비짐)의 함유량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은 7세기말을 전후하여 이전은 규사(비짐) 등이 적은 정선된 태토로 기와가 제작된 것 같고, 이후는 규사(비짐) 등이 많은 거친 태토로 기와가 제작된 것 같다. 이는 고신라시대에 조업이 실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곡 다경와요지,<sup>33)</sup> 내남 망성리와요지,<sup>34)</sup> 천북 동산리요지,<sup>35)</sup> 천북 물천리요지<sup>36)</sup> 등의 답사에서 확인한 것이다. 이상을 근거로 규사(비짐)의 함유량에 따라 정선된 태토와 거친태토로 나누어 전자를 7세기말 이전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타날흔적, 태토를 고려하여 앞장에서 소개한 유단식기와의 편년하면 다음과

29)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앞 책, 1978.

30) 趙成允, 2000, 「앞의 논문」, pp. 34~35.

31)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78, 『雁鴨池』, pp. 177~182(圖508~510, 513~524, 528, 529, 531~537, 539~552).

32) 김형순, 2000, 「옛 기와를 통한 고고학 연구」, 『섬진강 주변의 백제산성』, 第23回 韓國上古史學會 學術發表大會, p. 136을 참고하였다.

33) 金誠龜, 1983, 「多慶瓦窯址出土 新羅瓦磚小考」, 『美術資料』第三十三號, 國立中央博物館.

34) 朴洪國, 1988, 「月城郡 內南面 望星里 瓦窯址와 出土瓦磚에 대한 考察」, 『嶺南考古學』5, 嶺南考古學會.

35) 金有植, 1984, 「月星郡 川北面의 新羅窯址」, 『慶州史學』第3輯.

金誠龜, 1993, 「百濟·新羅의 瓦窯」, 『佛教藝術』209号.

慶州大學校博物館, 2000, 「경주 천북 동산리 (주)진성화학 공장설립예정부지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지표·시굴조사 종합보고서』.

36) 韓國文化財保護財團·韓國馬事會, 1999, 『慶州競馬場豫定敷地 C-I 地區』.

같다. 원형의 기와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다경와요지 출토 유단식기와(그림 2·3)와 황룡사지 출토 유단식기와(그림 4, 도면 1)는 단판의 타날판으로 추정되므로 7세기말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위에서 소개한 5점 모두는 정선된 태토를 가진 것으로 7세기말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유단식 암막새가 출토된 유적의 기존 연구성과와 공반유물을 통해서 이 유단식암막새가 7세기말 이전에 제작된 것임을 보충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안강 육통리와요지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삼국시대의 와요지와 인접한 지역에 고려시대의 와요지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왔다.<sup>37)</sup> 신라와전도록<sup>38)</sup>에 보고된 안강 육통리기와를 살펴보자. 경주에서 가장 고식이라고 추정되는 수막새가 보고된 곳은 월성해자<sup>39)</sup>와 황룡사지<sup>40)</sup> 등을 들 수 있는데 안강 육통리 출토 연화문수막새와 같은 종류의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 안강 육통리 출토 연화문수막새는 자방의 배치, 연입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백제지역에서 출토되는 수막새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라에서 백제의 기와 제작기술을 받아들일 당시의 도입기 기와로 볼 수 있다.<sup>41)</sup>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이 연화문수막새는 황룡사 창건기의 기와보다 시기가 빠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sup>42)</sup> 2점의 미구기와는 평기와 제작기법을 근거로 하면 다음과 같다. 이 기와는 미구접합부분에 따른 형식분류<sup>43)</sup>에서 I·II 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도입기의 기와이다. 2점의 암키와도 소성도, 태토 등을 고려할 때 7세기말 이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볼 때 안강 육통리와요지는 고신라 시대에 조업이 이루어졌음이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위의 자료와 유단식기와에서 관찰되는 태토 등을 고려할 때 이 유단식기와는 7세기말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경와요지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그 조업연대를 6세기말 ~ 7세기말로 추정<sup>44)</sup>한 것

37) 金誠龜, 1993, 「百濟·新羅の瓦窯」, 『佛教藝術』 209号.

———, 1997, 『옛기와』 빛깔있는 책들 122, 대원사.

김유식, 2000, 「7~8세기 新羅 기와의 需給」, 『기와를 통해 본 고대 동아시아 삼국의 대외교섭』, 국립경주 박물관/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0조직위원회.

威德大學校博物館, 2001, 『慶州市 安康地區 大區劃 耕地整理 事業區域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38) 國立慶州博物館, 2000, 『新羅瓦塼』, pp. 184~186에 소개된 것이다.

39) 文化財研究所·慶州古蹟發掘調査團, 1990 『月城塚』.

40) 文化財管理局, 1984, 『皇龍寺』.

41) 趙成允, 2000, 「앞의 논문」, pp. 27~30.

42) 지금까지 황룡사의 창건기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글은 없는 듯 하다. 그렇지만 황룡사지 출토 수막새들 중 가장 고식의 것은 백제계·고구려계 신라기와라는 것은 현재의 정황으로 알 수 있다.

43) 趙成允, 2000, 「앞의 논문」.

44) 金誠龜, 1983, 「앞의 논문」.



세기중엽 ~ 7세기말로 추정된 견해<sup>45)</sup>가 있다. 신라와전도록<sup>46)</sup>에 보고된 기와들도 선행연구의 조업연대 추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신라와전도록에 보고된 기와중에는 6세기중엽까지 올려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 같고, 7세기초 전후와 7세기말사이에 제작된 자료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 출토된 유단식기와도 6세기중엽 ~ 7세기말 사이에 제작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에서 경주 출토 유단식기와의 제작시기를 7세기말 이전으로 편년하였다.

#### IV. 유단식기와의 성격

여기에서는 먼저 삼국시대에 제작된 고구려·백제의 암막새를 살펴보고 이것을 위에서 다룬 경주 출토 유단식기와의 비교하여 그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고구려의 암막새에는 집안의 장군총 출토 지두문암막새, 호태왕비 남서쪽에 위치하는 태왕릉 출토 지두문암막새, 마선구 서대총과 천추총 출토 지두문암막새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up>47)</sup> 여기에서는 신라와전 도록<sup>48)</sup>에 실린 장군총 출토 지두문암막새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5) 이 지두문암막새는 흑청색 경질로써, 외면에는 타날흔적이 관찰되지 않으며, 端部の凸면부 쪽에 비교적 규칙적인 지두문이 새겨져 있다.

백제의 암막새로는 군수리사지 출토 지두문암막새<sup>49)</sup>와 익산 제석사지 출토 귀면당초문암막새<sup>50)</sup>, 구아리 출토 암막새<sup>51)</sup>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암막새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군수리사지 출토 지두문암막새는 회적색으로 내면에 포목흔적이 관찰되며 태토는 정선된 것이다. 端部の 중앙에 횡침선이 있고 횡침선의 아래쪽(凸면부 쪽)에 손으로 문양을 새긴 지두문이 관찰되고 횡침선의 위쪽(凹면부 쪽)은 마무리질 되어 있다.(그림 6) 익산 제석사지 출토 암막새는 端部の凸면부 쪽과凹면부 쪽

45) 趙成允, 2000, 「앞의 논문」.

46) 國立慶州博物館, 2000, 『新羅瓦塼』, pp. 184~186에 소개된 것이다.

47) 常松幹雄, 1987, 「造瓦技法に關する一研究 -平瓦, 軒平瓦における押壓技法の分布と展開-」, 『東アジアの考古と歴史(上) -岡崎敬先生退官記念論集-』, 同明舎出版.

48) 國立慶州博物館, 2000, 『앞의 책』, p. 234. 도766.

49) 國立慶州博物館, 2000, 『앞의 책』, p. 245. 도815.

50) 龜田修一, 1981, 「百濟古瓦考」, 『百濟研究』第 12集, p. 111.

원광대학교박물관, 1996, 『개교50주년기념 박물관도록』, p. 203. 도288.

金昌鎬, 1999, 「앞의 논문」, p. 187.

51) 夫餘文化財研究所·忠清南道, 1993, 『夫餘 舊衙里 百濟遺蹟 發掘調査報告書』, pp. 59~61.

에 통일신라의 암막새와는 달리 연주문이 장식되어 있지 않고 段이 있다.凸면부 쪽과 凹면부 쪽의 段 사이에 문양이 새겨져 있다. 중앙에 귀면문이 있고 좌우에 당초문이 새겨져 있다. 구아리 출토 암막새는 위의 보고서<sup>52)</sup>에서 무문미구기와로 명명하고 이 기와의 용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추정하였다. 하나는 수키와의 미구기와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 다른 하나는 처마 끝에 올리는 기와로써 암막새의 드림새와 같을 가능성으로 추정하고,<sup>53)</sup> 전자의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유적에서는 이 무문미구기와가 15점정도 출토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보고서의 도면을 참조하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端部에 L字形 段이 있고 중앙에 침선이 있는 것이고<sup>54)</sup> 다른 하나는 端部에 침선만 있는 것이다.<sup>55)</sup>(그림 7) 도면을 통해 볼 때 전자는 위에서 다른 경주 출토의 유단식기와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

이상에서 삼국시대의 고구려·백제의 암막새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고구려 장군총 출토의 지두문암막새와 백제 군수리사지 출토의 지두문암막새는 단면에 지두문이 있어 서로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군총 출토의 지두문암막새는 5~6세기대로 추정되는 것이고 군수리 출토 지두문암막새는 6세기대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위의 사실을 방증한다.

그 다음으로 군수리 출토 지두문암막새와 구아리 출토의 端部에 침선이 있는 것과 段部 L字形암막새의 비교이다. 두 예의 공통점은 段이 없는 무단식암막새의 공통점인 端部 부분쪽(지두문·L字形段·횡침선이 있는 부분)의 두께가 그 반대쪽의 端部보다 더 두껍다는 것이다.<sup>56)</sup> 또한 端部 중앙에 횡침선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의도적인 행위로써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장식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구아리 출토 암막새에는 군수리 출토 암막새에 시문되어 있는 지두문이 없을지라도 동일 기능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구아리 출토 암막새와 경주 출토 암막새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두 예는 端部에 L字形 段을 지게 한 것으로 보았을 때 동일 용도로 사용했다고 추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고구려·백제의 암막새를 살펴보고 경주 출토의 유단식기와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삼국시대 암막새의 편년 서열을 상정할 수 있다.

고구려의 지두문암막새(장군총 출토 지두문암막새) → 백제의 지두문암막새(군수리 출토

52) 夫餘文化財研究所·忠清南道, 1993, 『앞의 책』, pp. 59~61.

53) 龜田修一, 1981, 「百濟古瓦考」, 『百濟研究』第 12集, pp. 110~111에서는 이 기와를 암막새로 보았다.

54) 부여문화재연구소·충청남도, 1993, 『앞의 책』, p. 60~61의 삽도 11)·13).

55) 부여문화재연구소·충청남도, 1993, 『앞의 책』, p. 61의 삽도 12).

56) 이와 같은 것은 신라 최고의 당초문암막새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조성운, 2000, 「앞의 논문」, p. 46의 도면 1-⑤참조).

지두문암막새) → 백제의 유단식암막새(구아리 출토 유단식암막새) → 경주 출토 유단식기와  
 또한 유단식기와는 일본에서 출토되고 있는 다겹호문암막새와<sup>57)</sup>도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  
 그 이유를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암막새는 기능적인 측면  
 보다는 장식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중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유단식기와와 다겹호문암막새가 지붕에 올려졌다고 생각할 때 둘의 시각적인 차이는 크게 다  
 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겹호문암막새의 제작법을 구아리 출토 유단식  
 암막새의 제작법과 비교할 때 공통점이 인정된다. 그것은 端部(문양면)에 횡침선을 두는 것이  
 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출토되는 다겹호문암막새는 백제·고신라의 유단식암막새에서 그 기  
 원을 찾아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 V. 맺음말

위에서 경주 육통리와요지·다경와요지·황룡사지·하구리 출토 유단식기와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유단식기와에서 관찰되는 속성인 타날흔적과 태토 등을 고려하고, 공반유물 등을 통해  
 서 제작시기를 추정하였다.

지금까지의 평기와제작기법에 대한 연구성과를 고려할 때 경주 출토 유단식기와에서 관찰  
 되는 단판의 타날흔적과 정선된 태토는 7세기말 이전에 사용된 속성으로 확인되었다. 육통리  
 와요지와 다경와요지에서 출토 보고된 기와류와 이 유적의 조업연대에 대한 연구성과를 참고  
 할 경우에도 유단식기와는 7세기말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유단식기와의  
 상한을 타날흔적과 태토를 고려할 때 7세기초까지 올려볼 수 있어 안압지 출토의 儀鳳四年銘  
 명문이 있는 당초문암막새의 선행 암막새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경주 출토 유단식기  
 와를 고구려 장군총 출토의 지두문암막새, 백제 군수리 출토의 지두문암막새, 백제 구아리 출  
 토의 유단식암막새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암막새의 端部에서 관찰되는 지두문, 횡침선, L字  
 形段 등은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장식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삼국시대 암막새의 편년 서열을 상정할 수 있었다. 고  
 구려의 지두문암막새(장군총 출토 지두문암막새) → 백제의 지두문암막새(군수리 출토 지두  
 문암막새) → 백제의 유단식암막새(구아리 출토 유단식암막새) → 경주 출토 유단식기와. 이  
 렇게 볼 때 경주 출토 유단식기와는 부여 구아리 출토 유단식암막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7) 龜田修一, 1981, 「앞의 논문」, p. 111에서 구아리 출토 유단식암막새와 일본에서 출토되는 다겹호문암막새(重弧文軒平瓦 : 日本 용어)가 동일한 의도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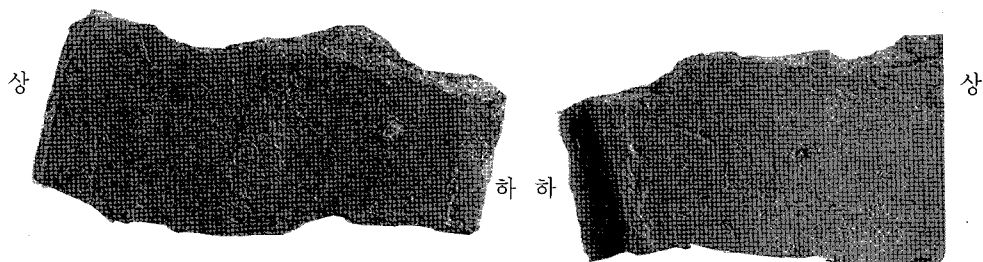


그림 1. 옥동리와요지 출토 有段式암키와  
(國立慶州博物館, 2000, 『新羅瓦塼』, p. 186, 도  
590, 590-1를 전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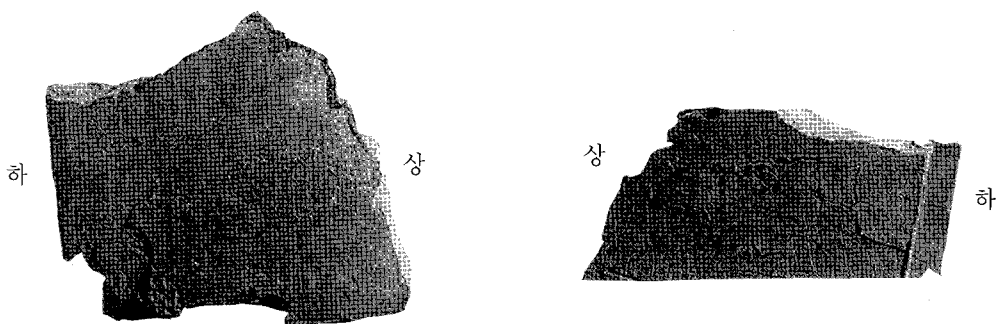


그림 2. 다경와요지 출토 유단식암키와  
(國立慶州博物館, 2000, 『新羅瓦塼』, p. 190,  
도 606, 606-1를 전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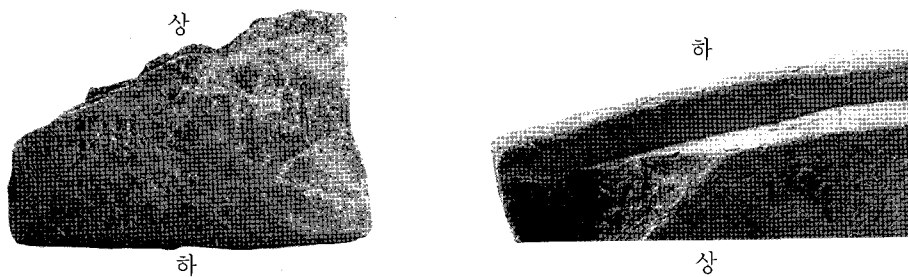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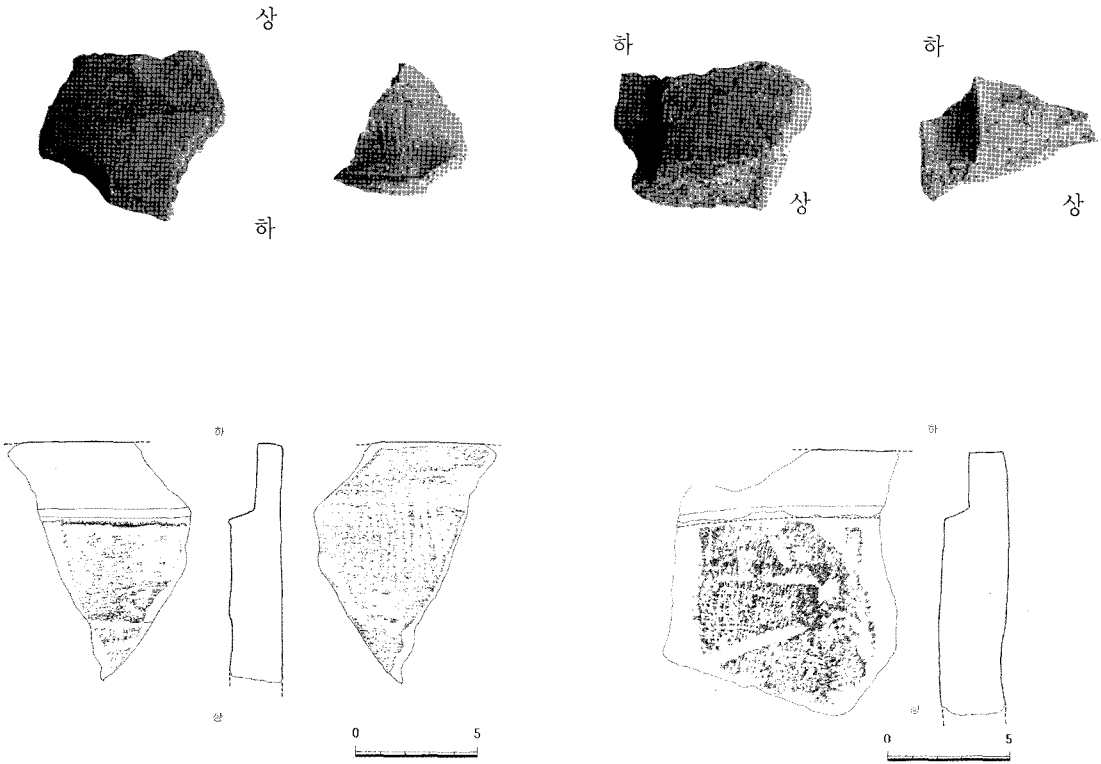


그림 3. 다경와요지 출토 유단식암키와  
(國立慶州博物館, 2000, 『新羅瓦塼』, p. 190,  
도 608, 608-1를 전재함)



도면 1. 황룡사지 출토 유단식암키와

도면 2. 하구리 출토 유단식암키와

그림 4. 하구리(左)·황룡사지(右)출토 유단식암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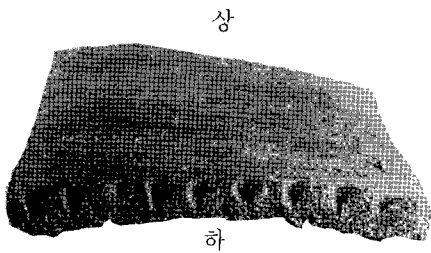


그림 5. 장군총 출토 지두문암막새

(國立慶州博物館, 2000, 『新羅瓦塼』, p. 234, 도 766을 전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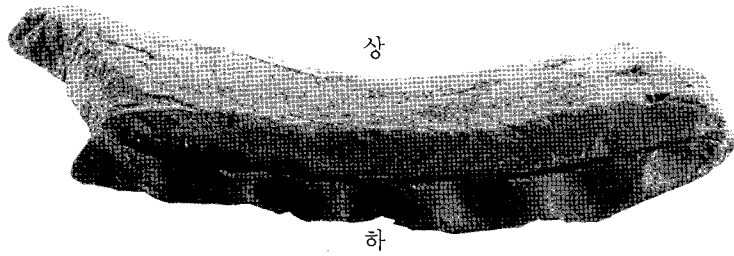


그림 6. 군수리 출토 지두문암막새  
(國立慶州博物館, 2000, 『新羅瓦塼』, p. 245, 도 815를 전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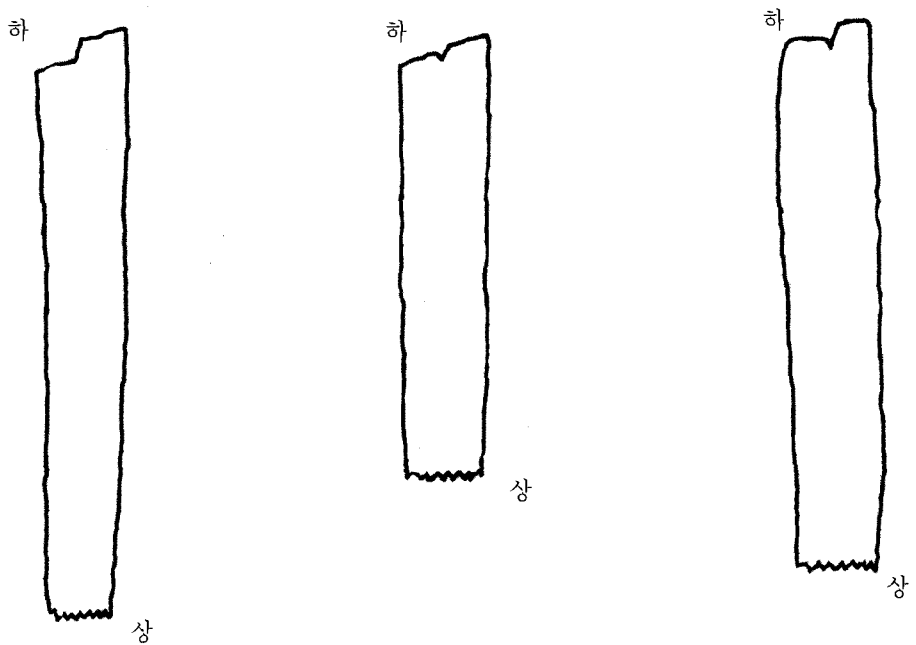


그림 7. 舊衙里 출토 有段式기와  
(夫餘文化財研究所, 1993, 『夫餘 舊衙里 百濟遺蹟 發掘調査報告書』, pp. 60~61, 삽도 11·12·13을 전재)

## An Examination of Reverse ‘L’ Shaped Roof-tiles of the Old Silla Period

Jo, Sung-Youn

This paper introduces the reverse ‘L’ shaped roof-tiles discovered in Kyongju and tries to date them on the basis of the manufacturing technology of roof-tiles and associated various kinds of roof-tiles. Furthermore, I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verse ‘L’ shaped roof-tiles of Silla compared with those of Baekje and Goguryo. Up until today, the discovery of the reverse ‘L’ shaped roof-tiles in Kyongju area has been reported at roof-tile kilns of Yuktong-li, Dagyung, and Haguri, and Hwangyong Buddhist Temple. I estimate the chronology of the female tile-ends recovered at these archaeological sites as before the end of 7th century A.D. considering previous studies and associated artifacts. Compared similar female tile-ends discovered at Janggun Tomb in Goguryo, and the ruined Buddhist temple at Gunsuri and Gooari in Baekje with those recovered in Kyongju, they are closely related each other in terms of the design motives of finger-print, horizontal line in the middle of roof-tiles, and reverse ‘L’ shaped end part. Taking into account all these design attributes, I estimate the relative chronological order of the female tile-ends recovered at three different kingdoms as follows: 1) female tile-ends decorated with finger-prints (tile-ends recovered at Janggun Tomb) in Goguryo, 2) female tile-ends decorated with finger-prints (tile-ends recovered at Gunsuri) in Baekje, 3) reverse ‘L’ shaped female tile-ends (tile-ends recovered at Gooari) in Baekje, and 4) reverse ‘L’ shaped roof-tiles in Kyongju.